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6. 29.(월) 16:00

본격적인 장마철 전, 전국 빗물받이 정비 완료로 침수 대비에 만전

- 전국 423만 8천여 개소 빗물받이 정비 실적 139.9% 달성
- '비 오기 전 점검, 비 온 후 청소'를 통한 빗물받이 반복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423만 8천여 개소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마철 전 점검과 청소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빗물받이 정비 TF'를 운영하며, 장마철 전까지 모든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정비 실적을 관리해 왔다.

그 결과, 현재(6.26. 기준) 전국 빗물받이 정비 실적은 139.9%를 달성했다.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중점관리구역은 187.5%, 그 외 일반관리지역은 134.5%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도시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빗물받이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326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3.27.)하고, 지역별 정비 우수사례집과 빗물받이의 위치를 알리는 스티커 표준안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안전점검(5.11.~29.)을 통해 발견된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61건의 위험요인은 장마철 전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창구도 운영(5.1.~)하고 있다. 현재까지(6.26.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배 늘어난 13,75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011건(87.2%)이 처리됐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여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도 운영(7.7.~9.30.)한다. 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 스티커 부착, 쓰레기 투기 방지 홍보 등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정비가 완료된 곳이라도 후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비 오기 전 점검, 비 온 후 청소’로 빗물받이를 반복적으로 정비하고, 정비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전국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1차 정비를 모두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비 실태를 지속 관리하며 올 여름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고, 쓰레기 투기 금지 등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오병곤 (044-205-5116)



빗물받이 점검·청소 현황 (6.26. 기준)

(단위 : 개소, % / '26.6.26. 기준)

시도	관리대상			점검실적(청소·준설)		
	전체	중점관리구역	일반	전체	중점관리구역	일반
계	4,238,710	428,009	3,810,701	5,929,626 (139.9)	802,600 (187.5)	5,127,026 (134.5)
서울	575,833	28,949	546,884	879,760 (152.8)	88,900 (307.1)	790,860 (144.6)
부산	131,398	12,543	118,855	190,503 (145.0)	37,422 (298.3)	153,081 (128.8)
대구	168,863	19,552	149,311	198,378 (117.5)	33,312 (170.4)	165,066 (110.6)
인천	176,757	25,320	151,437	221,530 (125.3)	32,817 (129.6)	188,713 (124.6)
광주	85,291	12,866	72,425	127,116 (149.0)	16,384 (127.3)	110,732 (152.9)
대전	147,112	5,315	141,797	183,769 (124.9)	7,109 (133.8)	176,660 (124.6)
울산	89,938	2,080	87,858	101,700 (113.1)	3,129 (150.4)	98,571 (112.2)
세종	25,553	1,204	24,349	37,873 (148.2)	2,374 (197.2)	35,499 (145.8)
경기	940,457	42,098	898,359	1,369,081 (145.6)	100,795 (239.4)	1,268,286 (141.2)
강원	212,336	30,079	182,257	228,981 (107.8)	32,760 (108.9)	196,221 (107.7)
충북	163,399	34,593	128,806	186,812 (114.3)	41,839 (120.9)	144,973 (112.6)
충남	180,409	22,847	157,562	212,479 (117.8)	30,252 (132.4)	182,227 (115.7)
전북	211,105	18,525	192,580	275,489 (130.5)	53,438 (288.5)	222,051 (115.3)
전남	291,208	87,541	203,667	443,139 (152.2)	175,030 (199.9)	268,109 (131.6)
경북	235,353	50,401	184,952	321,675 (136.7)	74,281 (147.4)	247,394 (133.8)
경남	455,431	26,959	428,472	711,018 (156.1)	49,929 (185.2)	661,089 (154.3)
제주	148,267	7,137	141,130	240,323 (162.0)	22,829 (320.0)	217,494 (154.0)